



њќќ 운 선물

「구원의 위대함과 확실성」

Amazing Present

The greatness and certainty of salvation

JOY CHURCH

1. 구원의 의미와 그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와 그 형벌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1)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구원받은 천국의 일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구원받은 것)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2) 영원한 생명은 원래 예수님 안에 있다

요한일서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의 11절에는 “이(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그리

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영원한 생명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훌륭한 재능과 성격의 소유자를 원한다면, 그 재능있는 사람을 고용해야합니다. 재능과 성격은 그 소유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가 열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구원받은 것) 여부는 다음 성경 말씀(고린도전서 13:5)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위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나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에 초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즉 초대를 함으로서, 예수님은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 마음이나 인생에 무리하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초청할 때 드디어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20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위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밖에 서서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과 삶에 모셔들이면, 다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공기를 빼낸 진공병의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만과 불신의 자아를 빼내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자깐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내 죄와 그 형벌로부터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제대신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신 것,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인생과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로 모셔들이고자 합니다.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성령의 전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내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을 위해 일해 주시는 당신개인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2 . 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를 것입니다. 얼굴에서도,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일까요.

하나는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려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멸망의 인생 열차에서 내려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열차로 갈아타는 마음가짐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는 했지만, 지·정·의에 의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지적 동의, 그리고 진정한 감정적인 소원과 기쁨,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전인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1) 성장에 통한 능력이나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

히브리서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찌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나 이해가 없는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에너지를 빼앗겨 성장할 힘이나 기쁨도 느끼기 힘듭니다. 확신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은 기쁨과 힘, 열정의 바탕이 됩니다. 이런 확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이 없이 주위를 헤매는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어 버립니다.

(2)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베드로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이 자신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떠나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은 마귀에게는 가장 큰 타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확실히 정착하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상태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즉, 확신이나 열정이 없는 채 갈등이나 의심 속에서 인생을 보내도록 다양한 공격을 합니다.

(3)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 의심이나 패배감, 죄책감에 잘 빠진다

야고보서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해도 성경의 명확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가장 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주변 환경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구원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조금의 실수에도 패배감이나 죄책감에 빠지므로 영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힘을 발휘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는 것도 어렵고 불안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 자신의 구원의 인식과 확신에 대한 방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구원받은 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인간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와 확인,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방황과 고통을 느끼거나 사회에 나가서는 일과 대인 관계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1)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영접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경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 관련 지식을 배우면 금방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말씀이 아닌 감정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해도 이 정도라면 확실히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또 삶 속에서도 비교적 나쁜 일도 없이 지내거나 하면 감정적으로 업되어 그것이 마치 구원에 대한 확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들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감정적으로 괴로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감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어떠것으로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능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관계를 좌우하거나 관계가 끊어진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시편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3)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선입관

아무래도 우리는 무언가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강한 인식과 선입관에 묶여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일반 철학까지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이슬람, 불교(수행을 통한 네반), 유대교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 온 것도 있어,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는 신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구원이나 천국을 그냥 받을 수 있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그것에 적합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겠다는 생각입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등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구원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9 절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며 9 절에는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

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 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거나 훨씬 적게하고 살아간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행동으로 저지르는 나쁜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행 구원을 고집하는 당신에게는 그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둘째는, 어느정도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너무 존귀하여 인간에게 존재하는 값 비싼 모든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구원을 사지 못합니다. 그만큼 구원이란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행위

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만 주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로트를 사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로트에 인생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사더라도 당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을 돈이나 당신의 작은 선행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로마서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
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구원이 행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행위에 의해 취소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죄와 좋지 않은 행위가 있어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선물로 주고 다시 그것을 빼앗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4.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먼저는 죄인인 자신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과 같은 죄인이 자력으로는 죄 사함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위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3 번째는 이 예수를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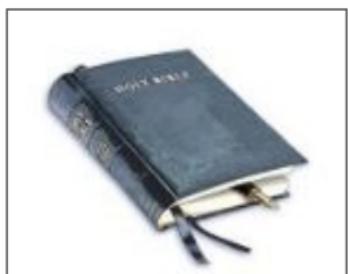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 . 구원에 대한 이해와 예화

(1) 펜의 예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

요한일서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의 펜이 성경에 끼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펜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을 건네 받으면 이 성경과 함께 그 안에 끼워진 펜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축복, 천국과 같은 모든 것들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2) 왕자의 눈을 빼야하는 왕

“우리 죄를 아들(예수)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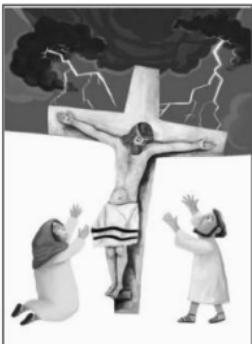
옛날, 어느 나라의 왕에게는 곧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성적인 범죄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심각함을 느낀 왕은 “성적인 죄를 저지른 자는 양눈을 빼어버린다”는 엄격한 계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1 명의 범죄자가 잡혀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의 얼굴을 본 순간 왕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인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국가에 선포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 정의가 무너져 버려 왕으로서의 존재도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눈을 뺀다는 것은 상상만해도 끔찍했습니다.

왕은 나라에 약속한 계율도 지키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한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눈을 모두 빼는 대신 자신과 왕자의 눈을 하나씩 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은 나라에 대한 약속과 정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희생이며,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로 하나님은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정의와 함께 죄 형벌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최고의 사랑도 동시에 나타내주셨습니다.

(3) 피로침의 예화

"당신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당신의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다"



이사야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

었도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죄와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대신 죽으려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죄인의 머리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

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낙뢰가 항상 머물러 있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피뢰침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뢰침이 낙뢰의 전기를 모두 흡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뢰침이 없는 곳에 낙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새까맣게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도 그와 비슷합니다. 죄에 의해 우리가 받게 되는 형벌은 낙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분노를 통째로 받아 죽어 주셨습니다. 마치 피뢰침처럼 우리가 받을 분노의 낙뢰를 전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피뢰침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다면 당신은 조금의 해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받게 됩니다. 당신의 죄와 그 형벌로 인한 낙뢰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뢰침 아래에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어느 신문 기사에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슬픈 모녀의 시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슴에 안은 채 타서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의 형벌로부터 지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대신에 불타 죽으셨습니다.

(4) 악수의 예화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양손에 의해 완벽하게 불들려 있다.

요한복음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손이 당신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무것도 당신을 이 두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구원받은 당신은 이 두 손을 잡지 않고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항상 당신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고, 당신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당신의 구원은 완전히 보호됩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아래 성경 말씀 참조).

로마서 8:35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선물 (구원의 위대함과 확실성)

Amazing Present (Greatness and Certainty of Salvation)

저자 姜 錫在 (강 석재)

발행 일본국제선교회/JOY CHURCH

〒812-0045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히가시코엔 4-5

전화 092(643)5534

인쇄 주식회사 마이티

E-mail joyskan@gmail.com

비매품